

현장시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2공항 갈등 해결을 기대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놓고 벌어진 도민사회의 갈등이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도민사회의 여론과 무관하게 계획을 강행 추진하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도민들 간의 찬반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제주도 또한 중재자 역할은커녕 갈등의 중심에서 도민들과 대립하는 양상이다.

에서 쫓겨나야 할 주민들과 평생 소음피해를 겪어야 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점도 포함해서다. 모두 국토부와 제주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벌어진 일이다. 갈등의 시작 단계에서 국토부의 대응은 오히려 갈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현 공항 활용방안을 담은 외국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은폐하는가 하면 재조사 검토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들을 비공개하며 숨기기에 급급했다. 결정적으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부실·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도에 강제 종료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말았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생산 제2공항의 역할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축소되어 공항 인프라 확충의 최적 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국토부는 귀를 막을 뿐이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국토부는 형식적인 절차인 양 날림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은 물론 환경부로부터도 2차례의 보완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2공항 갈등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체는 국토부이지만 이미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용역 당시부터 제주도는 이 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강조해 왔던 당사자다. 피해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의 제2공항 계획에 대한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론하면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날로 커져만 가는 제2공항 갈등에 대한 해법 제시는 없었고,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부로 공을 넘길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제 역할을

자처하며 제2공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찬반 갈등이 큰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준 제주도의회에 도민들은 환영과 기대를 거는 분위기이다. 도의회 내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을 스스로 풀어내는 지방의회가 되겠다는 각오가 크다. 따라서 제2공항의 갈등을 지역에서도 스스로 풀어보려는 제주도의회 노력에 국토부와 제주도는 협조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는 지금까지 제2공항 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벌어진 갈등의 과오를 씻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리하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서도 안되고, 도의회 특위의 활동을 휘방 놓아서는 안된다. 도민 공론화를 포함한 도의회 특위의 활동으로 제2공항의 갈등 해결을 기대한다.

사설

후보 검증은 뒷전... '깜깜이' 체육회장 선거

이달 15일 치러지는 제주도체육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치단체장과 선출직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맡을 수 없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처음 치러지게 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주도지사도 체육회장을 맡던 시대에서 민선 체육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도 체육회장 선거에는 부평국·송승천 후보가 등록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체육회장은 2명의 후보가 등록 2과전으로 치러지며, 서귀포시체육회는 단독 입후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첫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는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후보 검증기회마저 거의 없는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민들은 물론 체육인들의 관심마저 제대로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과 후보자 '그들

만의 리그'로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선거당일 경견발표마저 생략됐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적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도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마참가지입니다. 간담회는 체육회장 선거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는데도 진행절차와 내용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후보자간의 토론이나 질문에 답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생색내기에 그쳤습니다. 두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알리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큼니다. 민선 체육회장은 엘리트체육은 물론이고 생활체육까지 망라하게 됩니다. 도민 건강과 체육발전에 영향을 크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 전문성 보다는 그들만의 '인맥'이 좌우하는 선거가 되도록해서는 안됩니다.

열린마당

사랑의 온도탑을 올려주세요



김두연 사랑의열매 제주도 나눔봉사 명예단장

지난해는 세 번의 태풍과 폭우, 가을잠마로 1차 산업은 흉작박산 나고 제주감귤은 품질저하로 당도가 낮아 감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경기는 곤두박질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상황은 최악의 위기다. 2020년 1월 5일 현재 목표액 기준 36억 4504원으로 목표액 대비 76.2% 달성했다. 제주도민은 목심이 있고 조양정신 나눔, 행복이란 신념이 강하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튼튼한 버팀목이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고액기부자 '1억 이상 아나소사이어터' 104명, 착한가정 2840개, 월 2만원 기부 착한가정 326개, 착한일터 30개, 동창회 단체 등 3년간 1000만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 70개, 나눔리더스 37개 등 제주사회에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개인, 단체 등이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 제주도민 여러분! 조양정신 의녀 김만덕 정신 '나눔, 행복'을 발휘해 공평 일어붙는 사랑의 온도탑을 100°C 이상 올리는데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서울도민회 박수 받은 이석문·송석인

신년하례회서 자부심 표명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송석인 제주대학교 총장이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제주도민회 신년하례회에서 도민회 회원들에게 박수를 받아 눈길. 이 교육감과 송 총장이 축사에서 제주 교육의 발전상을 전하자 이에 호응한 결과.

이 교육감은 "한국어 IB 교육시스템을 도입했다. 앞으로 교육은 '강남'이 아닌 '제주'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제주대가 약대를 유지했다. 이제 제주대에는 없는 학과가 없다"고 자부심을 표명. 부미현기자

오름 관광시스템 개선 언급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이 제주 오름과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한 관광지 개발 필요성을 언급. 이 부시장은 9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트레킹 중심의 제주 오름 관광시스템을 개선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력. 이 부시장은 "탐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걷는 오름 탐방에서 벗어나 불거리와 먹거리 등을 결합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시킨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김현석기자

고경대 문예재단 이사장 사직

○...전국 공모로 선발돼 2018년 9월 취임한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9대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10일자로 사직. 고 이사장은 취임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 문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작지만 강한 문예재단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 제주문예재단은 이에따라 차기 10대 이사장 선임 시까지 정관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인 김가영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될 예정. 전진희기자

사전 치밀치 못한 렌터카 총량제 아쉽다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인 총량제 도입이 중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행정이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지침을 근거로 렌터카 증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려던 렌터카 총량제는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8일 제주스타렌탈과 이 회사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선했던 제주특별법은 2018년 9월 21일 시행되는데, 제주시는 이 법 시행 전인 그해 4월 증가 신청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2018년 6월 11일과 7월 27일 추가로 낸 증가 신청을 제주시가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총량제가 시행된

다는 소식에 렌터카 업체가 무더기로 증가를 신청하자 제주도는 그해 3월 제동을 걸기 위해 긴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려던 계획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도내에 렌터카가 지나치게 많이 운행되면서 교통체증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렌터카 감축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출몰이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각종 소송전에 휘말릴 경우 렌터카 총량제는 자칫 좌초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참에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마구 밀어붙였던 제주도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목적이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무리하면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고 김경환(한림고 교감) 아버지 나주김공 성택(前 오라노동인연합 회장·향년 87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8일 16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월 10일(금) ▶백인일시: 2020년 1월 11일(토) 오전 8시 ▶백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해안동 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부공 창욱(오야길, 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아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0년 1월 10일 부인 김옥분(향년) 아들 부동현 며느리 강금숙 상현 완현 민현 딸 부난희 숙희 경희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곡식물의학용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서울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인동장세 옥동(향년 9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아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0년 1월 10일 아들 김성희 며느리 윤정애 딸 김금선 사위 임광석 금중 장영효 금신 장영효 금현 박도현 지연 홍선한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